

“야구 포기하려고 했었다” 나지완이 밝힌 반등의 비결

좌익수로 풀타임 소화해 73득점 올려

“수비 하지 않은 것이 좋은 성적의 비결”

“야구를 포기할 수도 있었다.” KIA 타이거즈 베테랑 타자 나지완(35)에게 2020시즌은 반등의 해였다. 2019시즌은 잊고 싶은 시즌이었다. 56경기에 출전해 153타석에 그쳤다. 타율도 1할8푼6리, 6홈런, 17타점에 불과했다. 1군 보다 퓨처스 팀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 데뷔 이후 최악의 시즌이었다. 나지완을 보는 눈도 싸늘했다. 2020시즌은 보란듯이 반등했다. 좌익수로 풀타임을 소화했다. 137경기에서 556타석이나 소화했다. 타율

2할9푼1리, 17홈런, 92타점, 73득점을 올렸다. 중심타선에서 팀을 이끄는 리더로 돌아왔다. 풀타임 수비를 하느라 체력이 떨어져 3할 타율과 100타점에 실패했지만 성공적인 시즌이었다. 맷 윌리엄스 감독은 지명타자를 최형우에게 맡기고 나지완에게 좌익수를 주문했다. 절묘한 선택이었다. 원래 좌익수였던 최형우는 해결사로 활약하며 생애 두 번째 타격왕(354)에 올랐고 28홈런, 115타점의 우등성적을 올렸다. “수비를 하지 않은

것이 좋은 성적의 비결이 된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지완도 호성적을 거두고 재기에 성공하는 이유가 됐다. 초반에는 수비에서 허둥대는 모습도 보였으나 경기를 거듭할수록 안정감을 주었다. 다이빙 캐치까지 선보였다. 나지완은 “좌익수로 수비가 나아졌다는 말이 가장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수비와 공격까지 모두 되는 야수였다. 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난 나지완은 2020시즌에 대해 “작년에는 말바다까지 찍었다. 올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구를 했다. 야구로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 다이어트 등을 포함해 참아야 할 것들이 많았다. 내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작년 성격적으로 내 이름을 내밀 수 없었다”고 말

했다. 이어 “(비판적인) 기사도 힘들었다. 못하면 채찍질은 당연하다. 이겨내는 것이 힘들었다. 야구를 포기할 생각도 했다. 방망이를 들 수 없을 정도였다. 방망이를 들면 못할 것 같았다. 시즌 초도 그랬다. 아무도 이렇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버티고 버텼다. 가족의 힘으로 버텼다”고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나지완은 2021시즌도 중심타자로 기대를 받고 있다. 미완의 100타점을 목표로 12월에도 훈련을 계속하지 않고 있다. 나지완은 11월 마무리 캠프에서 임시 주장을 맡아 새해는 정식 주장으로 승격할 가능성이 있다. 나지완은 “후배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내가 겪은 경험을 잘 전해주고 조력하는 선배가 되고 싶다”고 희망했다. 서선욱기자

김도훈 감독, ACL 우승 이끌고 울산과 작별

2017년 부임해 AFC 챔피언스리그·FA컵 우승 한 차레씩



프로축구 울산 현대 김도훈(왼쪽) 감독과 김광국 단장 (사진 = 울산 현대 제공)

프로축구 울산 현대의 김도훈(50) 감독이 8년만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정상 탈환을 이끌고 아름다운 작별을 알렸다. 울산은 2020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이후인 20일 새벽(한국 시간) ‘울산 현대, 김도훈 감독과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도훈 감독과 4년의 동행을 마치고 작별한다. 챔피언스리그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끈 김 감독은 페르세폴리스(이란)와의 결승전을 끝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며 감독 역할을 내려놓게 됐다”고 발표했다. 울산은 전날 카타르 알 와크라의 알 자누브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페르세폴리스와의 대회 결승에서 주니오의 멀티골에 힘입어 2-1 역전승을 거뒀다.

2012년 이후 8년 만에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통산 두 번째다. 기쁨은 잠시였다. 김 감독과 울산은 결별 소식을 알렸다. 울산은 올해 K리그1(1부리그)과 대한축구협회(FA)컵에서 전북 현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모두 준우승에 만족했다. 김 감독은 2017년 부임 첫 해 FA컵에서 정상에 올랐을 뿐 K리그1(2회), FA컵(2회)에서 준우승만 네 차례 기록했다. 2인자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지도력에 대한 평가와 여론이 좋지 않았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지만 결국 변화를 택한 것이다. 김 감독은 우승 직후 “내년에도 팀

에 잔류하느냐는 질문에 “올 시즌 계약이 끝나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에 가서 외인한 잔치며 쉬고 싶다”며 이별을 예고했다. 울산 구단은 “김 감독은 부임 첫 해 구단 역사상 첫 FA컵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고, 매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며 아시아 무대에서 팀의 이름을 알렸다. K리그에서 점진적인 순위 상승과 함께 치열한 우승 경쟁으로 구단 경쟁력 상승에 일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단 역사상 두 번째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자 두 번째 무패 우승을 선물하며 구단과의 동행에 아름다운 끝을 맺었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김 감독은 울산에서 4년 동안 총 196경기에서 106승50무40패의 성적을 냈다. 구단은 카타르 현지에서 김 감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감독은 “울산에서의 4년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서 기쁘다. 결과가 좋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 구단의 건승을 빌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은 이튿날 내 후임 감독을 선임해 내년 시즌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희기자



리오넬 메시는 20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노우에서 열린 발렌시아와 2020~2021시즌 프리메라리가 14라운드 홈 경기에서 골을 터뜨렸다.

‘643번째 골’ 메시, 단일 구단 최다골 타이 기록

‘축구황제’ 펠레와 타이 기록...추월 눈앞

리오넬 메시(33)가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에서 자신의 643번째 골을 터뜨렸다. 이는 ‘축구황제’ 펠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단일 구단 최다골 타이 기록이다. 메시는 20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노우에서 열린 발렌시아와 2020~2021시즌 프리메라리가 14라운드 홈 경기에서 골을 터뜨렸다.

그는 0-1로 끌려가던 전반 49분 헤딩 골로 동점을 만들었다. 2005년 5월1일 바르셀로나에서 데뷔골을 넣었던 메시는 17시즌 동안 무려 643골을 만들어냈다. 메시는 앞으로 한 골만 더 넣으면 단일 구단 최다골의 주인공이 된다. 펠레는 1956년부터 1974년까지 브라질의 산투스에서 643골을 기록했다. 뉴시스

챔스리그 MVP 윤빛가람 “축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대회 4골 3도움으로 공격에서 핵심 역할

프로축구 울산 현대의 미드필더 윤빛가람이 아시아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됐다. 그는 “축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기쁨을 표현했다. 김도훈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19일 오후 9시(한국시간) 카타르 알 와크라의 알 자누브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페르세폴리스(이란)와의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주니오의 멀티골에 힘입어 2-1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울산은 2012년 이후 8년 만에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통산 두 번째다. 올해 K리그1(1부리그)과 대한축구협회(FA)컵에서 전북 현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모두 준우승에 만족했던 울산이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윤빛가람은 이번 대회에서 4골 3도움을 기록하며 최우수선수(MVP)상을 수상했다. 고비에서 울산 공격의 승부를 뜨게 했고, 영양가 만점의 골과 도움으로 공헌했다.

윤빛가람은 “오늘이 축구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인 것 같다. 먼저 실점하며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선수들이 지지 않는다는 생각과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로 역전했다”고 했다. 이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간절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늦은 시간까지 한국에서 응원해주신 팬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시즌 초부터 끝까지 믿고 기용해주신 감독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보탰다. 울산은 전반 45분 수비수 박주호의 실수로 매드디 압디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다. 그러나 추가시간에 페널티킥 기회를 잡았고, 주니오의 동점골로 다시 균형을 맞췄다. 윤빛가람은 “먼저 실점하며 부담감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전반 종료 직전에 주니오의 득점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다”며 “감독님이 하프타임에 개인적인 부분과 전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다. 선수들



프로축구 울산 현대 윤빛가람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이 잘 따랐다”고 했다. MVP 수상에 대해선 “혼자였다면 절대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팀이 함께 우승했고, 좋은 경기력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런 큰 상이 왔다”며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활약은 아니었다. 항상 스스로 만족하기보다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주변 선수들이 많이 도와줬다. 즐겁게 하려는 마음가짐이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다”고 했다. 김민정기자

전남 ‘역경 딛고 일어서 희망 찾다’ 2020시즌 특집 다큐 3부작 공개



전남드래곤즈가 ‘희로애락(喜怒哀樂)’했던 2020년을 영상으로 담았다. 전남은 올해 K리그2 27경기에서 8승 14무 5패 승점 38점 6위로 시즌을 마쳤다. 총 31골을 득점했고 25골 밖에 내주지 않았다. 제주유나이티드(23실점)에 이어 최소 실점 2위에 오르며 단단한 수비를 자랑했다. 한때 리그 3위가

지 치고 올라가며 목표했던 플레이오프에 한발 다가갔다. 아쉽게도 지난 11월 21일 최종전에서 서울이랜드와 1-1로 비기며 4위까지 주어진 준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어느 때와 달리 이번 시즌은 코로나바이러스라는 특수 상황을 맞았고, 이로 인해 시즌 개막이 3월에서 5월로 늦춰졌다.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주

중과 주말의 빠른 일정이 계속됐다. 과부하로 인한 부상과 속출과 체력 저하로 정상 전력을 가동하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전경준 감독은 코치진, 분석관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대 연구, 분석에 매진했다. 최고참 최효진, 주장인 김주원을 필두로 한 선수들은 원팀으로 뭉쳐 ‘한 번 해보자’ 의지로 시즌을 성공적으로 완주했다. 비록 목표했던 승격에 실패했지만,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전남은 고뇌로 시작해 역경을 딛고 플레이오프에 도전했다. 그리고 다가올 시즌 희망을 찾는 드래곤즈의 스토리를 영상으로 제작했다. 다큐는 ‘고뇌’, ‘노력’, ‘희망’ 총 3편으로 구성됐으며 20일(일) 오후 8시 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1부 ‘고뇌’가 첫 공개 된다. 2부와 3부는 27일(일) 오후 8시와 2021년 1월 3일(일) 오후 8시에 방영된다. 특히, 선수들이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전남드래곤즈 무엇인지?’에 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